[ 경제지표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 해석 ]

1. 비트코인 공급량

* 공급량과 가격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.
* 하지만 상관계수가 양의 상관계수로 나오는데, 이는 공급량은 느리게 증가하는데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상관관계에선 양의 상관관계로 나오는 것으로 추측. &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상 상관관계로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 힘듦.

1. 금 가격

* 논문에 의하면, 비트코인은 실물자산인 금과 통화자산인 달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짐을 검증되었다. 따라서 비트코인과 금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자산이므로 금 가격이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추측.

1. USD/KRW 환율

* 논문에 의하면 비트코인과 달러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, 달러가 강세이면(=USD/KRW환율이 상승하면)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추측.

1.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

*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추측.

1. KOSPI, NASDAQ

* 주식과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, 높은 변동성이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, KOSPI, NASDAQ 지수가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추측.

1. VIX, VKOSPI

* VIX, VKOSPI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지수를 의미하고 주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KOSPI와 NASDAQ이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할것으로 추측되므로, VIX, VKOSPI가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추측.
* 상관계수가 비트코인 가격과 양의 상관계수를 가지는데, 그 이유는 VIX, VKOSPI 지수는 미래시점의 주식시장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이므로 비트코인 가격에는 현재시점의 상관계수가 아닌 과거시점의 상관계수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. & 시계열 데이터 특성상 상관계수만으로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 어려움.

1. 소비자물가지수

*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다면 실물화폐가치가 하락한 것이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추측.